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2004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상 · 데살로니가후서 · 역대하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역대상 · 데살로니가후서 · 역대하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증 인



수년 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 주님 바로 알지 못해 우리는 몰었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요 14:8).
이렇듯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고집스런 그 세월 오래였지만
주님은 그 크신 인자로 우리를 이끄셨네.
갈보리 언덕과 부활의 무덤으로...

저주의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시는
주님을 보고서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그 분의 불변하는 사랑을 보게 되었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달리신 저 갈보리의 십자가 앞에서...
또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도 찾아오시어
그 귀한 상처에 우리 손을 대라셨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요 20:27a).

아, 우리의 행할 본분 분명하니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취하셔서
이 일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4월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늘 힘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 4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데살로니가후서

본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이다.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큰 핍박을 받고 있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애타게 고대했다. 이러다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가르침에 치중하여 직장과 사업을 버리고 무위도식하면서 재림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전한 태도를 가르치게 되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핍박과 박해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그리고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때로는 고통에 젓눌려 낙심할 때도 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지, 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해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전반부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이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크게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믿고, 현실 생활을 떠나 비정상적으로 살아간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현실에 파묻혀서 살아간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해 준다. 그러므로 데살로니

가후서 중반부를 읽으면서 임박한 재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갈망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자.

셋째, 마지막 날에 있을 큰 배교(背敎)의 문제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살후 2:3-4; 단 9:27; 마 24:25; 계 11:7; 13:1-10). 또 이 적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 될 것이다(살후 2:4).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거짓에 현혹되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게 될 것이다. 바울의 이런 경고를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 마음에 경고를 삼도록 하자. 어떤 이들이 배교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배교의 시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 알도록 하자.

내용분해

1.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함(1:1-12)
2.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2:1-17)
3. 교인들을 향한 권면(3:1-15)
4. 맺는 말(3:16-17)

첫째 아담을 시험하였던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1절).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던 사단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진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7절).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롬 6:23 참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고 곧 회개합니다(8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13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거기에 여호와와 의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나아가 범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극히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대속의 주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 안에서 사단의 시험을 늘 이기게 하옵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그곳을 '이스라엘의 번제단' (1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억하게 하는 그곳이 성전의 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터'라고 칭하셨습니다(고전 3:11). 또한 주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21).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은혜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엡 2:22).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짧은 본문 속에 '준비하였다'는 표현이 무려 다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 14:21).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와와 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며,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터 위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이 늙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레위인들을 부르고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 각 족속을 따라 반열을 나눈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를 분향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받드는 자로 구별되었습니다(13절). 그들은 구별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벧전 2:5). 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24-32절).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둘째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기에 따라 명하신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제사장의 반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이히멜렉으로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분을 맡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손의 수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을 나누는 원리는 차별이 없는 공평의 원리였습니다(5절). 이 원칙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여호와의 정해진 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19절). 그들은 자신들의 지체와 능력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르신 이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자로 충성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함으로써 섬김의 종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오직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운 다음에 여호와와 성호를 찬송하기 위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령한 노래' (1-3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논의 자손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16).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은총이 감사해서 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신지요?

신령한 노래를 위하여 구별된 288명은 24분류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7절). 즉, 그들은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된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롬 12:1). 그 말씀 속에는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기초한 헌신되고 준비된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찬송의 경우, 구원의 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은 십자가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구원의 주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와의 성전은 한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협력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본 장에서는 문지기와 창고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호와와 문지기는 오벰에돔의 아들들과(4·8절) 므라리의 아들들로(10·11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는 다윗 왕의 철저한 헌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역할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찬양 대원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극히 하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이들도 반드시 필요한 지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중한 일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창고지기를 맡은 레위인들은 여호와와 전 공간과 성물 공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바친 헌물과 성전 기구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예복과 그릇들, 매일 여호와께 드릴 예물들을 보관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신실함으로 수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곧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산 자들입니다(고전 5:15).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물질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신실하게 주의 전에 헌신케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모략(시 119:24) 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 나갑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 다윗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 다음에야 군대 장관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 왕국은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제일 먼저 신령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헛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사들(32-34절)로 인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119편 24절에서 그의 진정한 모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모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 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견고히 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중요한 말입니다. 본 장에서 다윗은 죽기 전에 신하들과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먼저 신하들에게 유언합니다.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와 회중의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8절). 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9절).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솔로몬이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이 선한 청지기로써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감명을 받아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금, 은, 놋, 철, 나무, 보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자기 개인의 소유까지 다 드렸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약103톤), 천은 7,000달란트(약 240톤)를 준비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친 것은 금 5,000달란트, 금 다릭(약130g의 금전) 일만 개,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와 각종 보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다윗은 광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고난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환란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교회를 칭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란 중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며 인내로 믿음을 잘 지켜,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환란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 성도들은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이히 여김'도 얻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때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를 핍박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될 때,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현실을 이기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받을 때 감사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사단이 믿는 성도들을 크게 유혹할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세상의 끝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15).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여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폐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넘어가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은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맡은 일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1절). 또한 자신의 일행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 달라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바울의 이 부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도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미쁘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규모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없다는 것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며 도리어 일거리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믿음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지은 성막이 있었고, 놋 단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대하 1:7b).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이까?”(10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였기에 그 백성을 위하여 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힘입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될 필요한 물건들과 기술자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로 왕은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요구에 따라 사람과 재료를 보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두로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담군(나르는 사람) 70,000인과 별목꾼(별목 및 돌 뜨는 사람들) 80,000인과 감독자 3,600명을 세워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때가 찰 때까지는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큰 빛을 진 자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에서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마친 솔로몬은 마침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일찍부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곳으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한 나무 수풀에 걸린 어린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창 22:13-14). 이런 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그 어린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요 1:29).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양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한편, 솔로몬 성전에는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모두 정금으로 입히고 장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그룹 천사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였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성소 앞에 '야긴' (저가 세우시리라)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름 지은 두 기둥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알게 했습니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학 2:9).

기도 제목 / 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와 같은 외형적인 공사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값진 보석을 사용하여 최상의 인력과 기술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기물을 제작한 기술자는 두로 왕이 보낸 후람이었습니다(11절). 후람은 이방인 금속세공 기술자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광스럽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사 45:1-6).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전 기물 중에 놋단과 놋바다, 그리고 물두멍 같은 것은 제사장과 제물을 정결케 하는 기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한 구속사역을 예표합니다(히 10:22). 둘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가장 값진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예표합니다(딤후 2:21). 셋째, 성전 기물 제작에 있어서 나타난 정교한 기술과 뛰어난 예술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고전 10:31).

우리를 불러 복음의 위대한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아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성전에 쓰일 기물 만드는 일을 모두 마친 후, 일찍이 부친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찾아 성전 공간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행 5:1-4). 그런데 우리 자신이야말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고전 6:20).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침내 솔로몬은 칠월 절기 곧, 초막절을 기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평화와 안식의 날인 초막절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레 23:34-36). 언약궤가 봉인될 때에 여호와와 영광의 구름이 전에 가득 하였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섭기지 못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격스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중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임합니다.

성도의 예배와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궐을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 솔로몬은 성전봉헌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솔로몬은 성전의 의미와(1-3절), 성전건축의 역사적 배경(4-11절)을 소개하면서 성전건축의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과 부친 다윗에게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노라 고백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눅 17:10). 기념사를 마친 후 솔로몬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부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굳게 지키시고 그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이곳 성전에 임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때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장차 온 세상 만민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것을 예견하고 드린 기도입니다(사 2:3).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1절).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자 제사장이 능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와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백성들과 함께 7일 간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5절). 백성들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일을 지키고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10절).

하나님께서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따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혹 범죄하여 재앙을 받을 때에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버리고 겸비하여 이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4절). 그런데 만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땅에서 뽑아내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전도 모든 민족 중에서 버려 경계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19-20절). 이에 우리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빌 2:1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행한 치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위기간 중에 여러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주로 백성의 거주와 국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로 방어를 위해 전략 요충지에 성을 쌓고 군사를 두게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으로 역군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저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의 압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장차 임할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됩니다. 장차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계 20:6).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성실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가 행한 모든 지혜로운 일들도 빛이 바래지게 되었습니다(왕상 11:9-11). 우리들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선 줄로 알았지만 곧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실하게 섬기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신실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본장은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 주는 실례로 스바 여왕의 방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접견하고 나서 왕의 지혜로운 말과 왕궁의 규모와 화려함을 보고 감탄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과 그 신복들과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8절). 솔로몬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 그리고 그의 지혜와 명성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보면서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계 21:18-20).

신약에서 예수님은 남방여왕의 방문을 비유로 사용하시며, 장차 온 세상이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 나아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눅 11:31).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당시 남방의 여왕이 먼 길을 떠나 찾아왔다면, 우리는 모든 지혜의 참 실체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더 열심히 나아가야 마땅한지요!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요 1:11). 우리도 본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분열의 책임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이 분명하게 지적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즉,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별이었던 것입니다(왕상 11:11-13).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윗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만 생각해 본다면, 다윗 왕조는 몇 번이고 망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의 언약(삼하 7:8-16)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의 집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즉,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사 9:6).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요 14:27).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요 12:27). 그런데 본 장의 르호보암은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주기는커녕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런 왕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고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겸손히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분란의 아픔을 딛고 평정을 되찾은 남왕국 유다의 강성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군대를 일으켜 잃어버린 10지파를 되찾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선포한 중지 명령을 듣고 겸손히 자신의 의지를 꺾게 됩니다(1-4절). 르호보암은 애굽의 침공에 대비하여 유다 남쪽 국경을 요새화합니다(5-12절). 한편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악한 통치를 일삼자 이에 반발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13-17절). 르호보암의 왕국이 점차적으로 강성해진 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성도란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자입니다. 르호보암은 왕국의 분열을 초래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왕국분열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무조건 그 현실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자기 욕심과 감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현실과 자기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애굽 왕 시삭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은 르호보암과 온 유다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에 애굽의 침공을 대비하여 남부 지역에 많은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버리시자 그 모든 요새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애굽의 강력한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심령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패망과 절망만 있을 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시 127:1).

하나님께서서는 전적으로 당신을 의뢰하는 자만을 지키십니다(1-12절). 인간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에게 어찌 죄악이 틈 타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만이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은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하나님만을 늘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하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된 아비야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악한 왕으로 평가된 바 있는 아비야가 본 장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 아비야는 연설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종교성을 공박하는 대신 남왕국 유다의 온전한 제사와 율법 준수를 언급합니다(1-12절). 이러한 신앙적 입장을 견지한 아비야는 전력 면에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13-22절). 많은 군사, 훌륭한 작전, 탁월한 무기는 전쟁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그것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삼상 17:47 참고).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대적 마귀와 맞서야 하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두움의 권세자 곧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갈보리 전투의 승리가 늘 나의 승리가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아비아의 뒤를 이어 남왕국 유다의 왕위에 오른 아사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통치 초기에 종교 개혁을 실시하여 유다 내에 존재하던 각종 우상을 훼파하고(1-5절),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1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며(6-8절), 구스 군대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크나큰 승리를 쟁취합니다(9-15절). 실로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사 왕은 10년 동안 보기 드문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의 탁월한 통치력이나, 매끄러운 인간관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유다 내에 있는 죄악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개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이 연단을 잘 통과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깨뜨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에도 참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 내면의 적은 죄악과 우상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죽이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아사 왕이 실시한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사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만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1-7절). 아사 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또 한번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즉, 그때까지도 남아 있던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한편(8-15절), 왕궁 안에 서의 타락한 생활을 청산합니다(16-19절).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제1조건은 자신의 내면과 외부에 존재하는 죄악을 모두 청산하는 일입니다.

구스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아사 왕은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메시지는 더욱 온전히 순종하라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실로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교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아람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아사의 불신앙적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전에 위기를 느낀 아사는 아람 왕 벤하닷과 군사 동맹을 맺고(1-6절),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7-10절).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한 다음에 곧바로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11-14절). 아사 왕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과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길은 절대 험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맛보는 실패와 좌절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만이 멸망의 앞잡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은 영적 실패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실패와 절망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처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믿는 자는 결국 패망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대체로 선정을 베풀었던 여호사밧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의 초기 행적을 좇아 유다 내에 존재하는 우상을 척결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1-6절). 여호사밧은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 지역에 파견하여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7-9절),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후 그 힘을 이용해 강력한 국방 체제를 형성합니다(10-19절). 진실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인격이나 공동체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길은 언제나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참 신앙인은 단순히 죄를 청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삶을 돌이키는 죄 청산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 우리의 삶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처럼 온전치 못하고 모순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던 분열된 마음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여호사밧의 통치기간 중 크나큰 오점에 해당하는 북 이스라엘과의 동맹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민족의 단결을 꾀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선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북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1-3절). 그리고 이 동맹 때문에 아합 왕과 함께 무모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키고 오직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따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추진할 때에만 참된 일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십자가만이 구속의 길임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본 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참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4-27절). 진리라고 해서 항상 다수(多數) 편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진리는 소수 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수 군중의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휩쓸리지 말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서적이나 테이프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살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만이 최후 승리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 찬송/ 349장(나 주의 도움 받고자) ● 본문/ 마 21:1-9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연약하고 무가치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연약하고 무가치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읽으면서 특별히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귀처럼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분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 번 헤아려보고 '부족한 저이지만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1,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 끌고 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귀와 나귀

- 2) 3절-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고 묻는 사람에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했습니까?

" 가 쓰시겠다"

- 3) 4,5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성취된 구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이 네게 임하니 그는 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 4) 8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을 벗어 길에 찼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찼다.

앞뒤에서 따르며 을 불렀다.

- 5) 9절- 사람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하더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낱말을 사용해서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 ① 하나님의 뜻 ② 말은 바 사명 ③ 완수하려고 ④ 예루살렘으로
⑤ 마귀 ⑥ 승리 ⑦ 다윗의 영원한 나라

답)

2) '나귀의 의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창세기 49장 10-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풍성한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답)

참고) 나귀는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풍요와 번영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3) '나귀의 의미1'의 단락을 읽고...

질문)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답)

4) '나귀의 의미2'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를 풀어주신 일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고,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답)

나귀 ·	·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
매여 있는 상태 ·	· 우리들
풀어주심 ·	·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심

5) '나귀의 의미2'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 또는 결심하게 된 것을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올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마 21:4,5).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 입성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 이미 나귀 새끼를 축복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에 무가치한 어린 나귀 새끼가 사용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기에 그것들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최선의 것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홀이 결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십시오. 우리는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최선의 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인도해 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1. 감사 /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나귀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②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귀처럼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③ 저희들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 목 :

마치 :

- 44 -

복춘 이월부

81-31 03 요월복춘 주이두 이이 사이강 이이 송이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이월복춘

제 2 과 ●●●●●●●●

부활의 축복

● 찬송/ 151장(다시 사신 구세주) ● 본문/ 요 20:15-18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참된 축복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정작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축복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부활절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일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부활의 축복을 바로 알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요한복음 20장 15-18절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 1) 1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때와 거기에서 발견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을 찾아간 때: 안식 후 첫날 아침 아직 때
무덤에서 발견한 사실: 돌이 무덤에서 간 사실

- 2) 15절- 놀란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①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② 울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녔다.

- 3) 16,1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나를 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 4)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들”

- 5) 18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부활의 축복」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마리아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2) '가서 말씀을 전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의 또 다른 축복은 무엇입니까?

답)

3) '내 형제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부활의 또 다른 축복은 무엇입니까?

답)

4) '내 형제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5) '우리도 마리아처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

6) '부활의 축복'의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감동을 받거나 결심한 것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형제라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셔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다고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곧 성부 하나님의 집, 곧 여러분의 집에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그들이 영원토록 거할 집을 준비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것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형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이 곧 그들의 집도 된다고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그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지금 가십시오. 가서 부활의 축복을 모두 전하십시오.

1. 감사 /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① 부활의 축복이 저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저희도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② 이번 주 금요일 집회 시간에 열리는 성금요일 성찬예배 및 청지기 훈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③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한글로 된 한글을 읽는 법

(한글) 한글을 읽는 법을 알려주는 책

3-63 발음/문법

한글 발음

음운론이란 언어의 소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책은 한글의 발음에 대해 설명하고, 한글의 발음에 따라 한글을 읽는 법을 알려준다.

한글 발음의 기본 단위는 음소이다. 음소는 한글의 소리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한글의 발음은 음소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글'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하', '글'이라는 두 음소를 조합하여 발음한다.

한글 발음의 또 다른 특징은 음운론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글'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하', '글'이라는 두 음소를 조합하여 발음한다. 그러나, '한글'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하', '글'이라는 두 음소를 조합하여 발음한다.

한글 문법

한글 문법은 한글의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글'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하', '글'이라는 두 음소를 조합하여 발음한다. 그러나, '한글'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하', '글'이라는 두 음소를 조합하여 발음한다.

제 3 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찬송/ 512장(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본문/ 요일 2:3-6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던 일과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요한일서 2:3-6절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1)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을 지키는 것

2) 4절-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 5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4) 6절-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의 하시는 대로 자기도 할지니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설교자가 묻고 있는 아래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답)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집, 직장,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가?

2)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 했던 사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 수 있는가?

3) '예수님의 형상으로'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는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답)

- 원인 ·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다 식어지기 마련이다.
·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 결과 ·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 마귀가 이용하기 시작한다.
· 우리의 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위선자로 보이게 된다.

4) '우리를 향한 요구' 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정리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답)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5)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6)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라는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도전받은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해 달라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뢰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했다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허물어뜨리시며 녹이시고 깨뜨리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사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고후 5:17 참고).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1. 감사 /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고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대화가 주님에 관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② 단기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선교사역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1928년 12월 21일
 공포: 1929년 1월 1일

한글 맞춤법

한글은 한글자(한글자)와 한글어(한글어)로 나뉘어 있다. 한글자(한글자)는 한글어(한글어)의 기본단위인 한글자(한글자)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한글어(한글어)는 한글자(한글자)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한글자(한글자)는 한글어(한글어)의 기본단위인 한글자(한글자)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한글어(한글어)는 한글자(한글자)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한글자(한글자)는 한글어(한글어)의 기본단위인 한글자(한글자)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한글어(한글어)는 한글자(한글자)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한글어(한글어)는 한글자(한글자)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한글자(한글자)는 한글어(한글어)의 기본단위인 한글자(한글자)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한글어(한글어)는 한글자(한글자)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제 4 과 ○ ● ● ● ● ● ● ●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 찬송/ 356장(성자의 귀한 몸) 🕯 본문/ 사 5:23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번 설교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일부러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메로스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신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하여 큰 열심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사사기 5장 23절을 중심으로 아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23절-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를 돕지 아니하며 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 2) 23절- 메로스에 대한 하나님이 적대심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표
현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 3) 렘 48:10- 빈 칸을 채우고 외워보십시오.

“여호와와 일을 하는 자는 를 받을 것이요...”

- 4) 롬14:8,9-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
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
이니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잘못된 결정'의 단락을 읽고...

질문) 왜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서 중립을 지켰습니까?

- 답)**
- ① 당시에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 ② 이스라엘과 야빈 왕 모두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 ③ 본래 전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아무래도 가나안 왕 야빈이 이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2) '선포된 저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늘날 '메로스'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답)

3) '선포된 저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마태복음 10장 34,36절과, 마태복음 25장 31-32절 말씀을 가지고, 메로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해 보십시오.

답)

4) '그리스도의 원수'의 단락을 읽고...

질문) 메로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며 배신하는 셈입니까?

답) 과

5)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까?

답) 자기 자신을 하고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

모든 힘을 다해 와 싸워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으로 살아가야 한다.

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길을 걸어야 한다.

6)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의 설교문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돌아가면서 말해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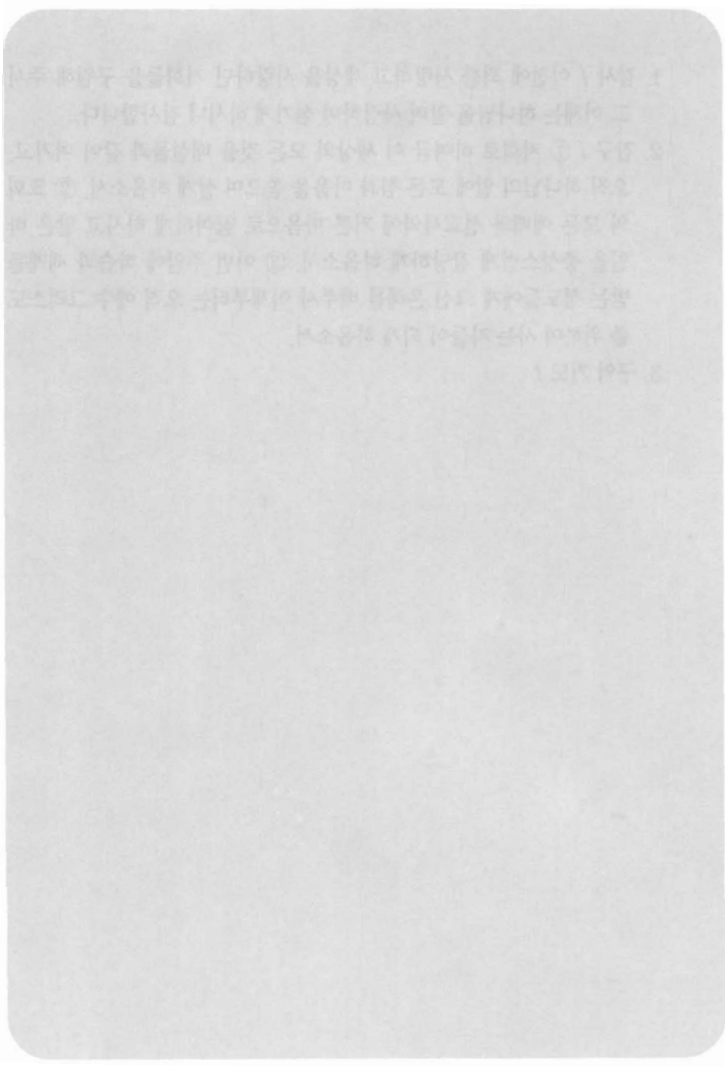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눅 9:18b)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19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깊은 마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섭니다. 이런 일꾼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일꾼들은 모든 힘을 다해 마귀와 싸웁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확고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결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멘.



1. 감사 / 이전에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①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모든 힘과 마음을 쏟으며 살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선교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③ 이번 주일에 학습과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 恒 豐 順

제 5 과 ○ ● ● ● ● ● ●

주의 만찬

찬송/ 29장(성도여 다 함께) 본문/ 고전 11:26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와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번 설교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 신학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이런 용어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각각의 의미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읽으시면서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중심으로 아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행 2:46- 누가는 '성찬식' 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2) 고전11:20- '성찬식' 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을 먹을 수 없으니"

3) 고전 11:26- '성찬식' 의 두 요소는 무엇입니까?

을 먹으며 을 마시는 것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이 문제를

- ◆ 「주의 만찬」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역사적 의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유월절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서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답)

2) '신학적 의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요한복음 6:5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답)

3) '종말론적 의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요한계시록 19: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답)

4) '우리의 준비'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답)

5) '주의 만찬'의 설교문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주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묵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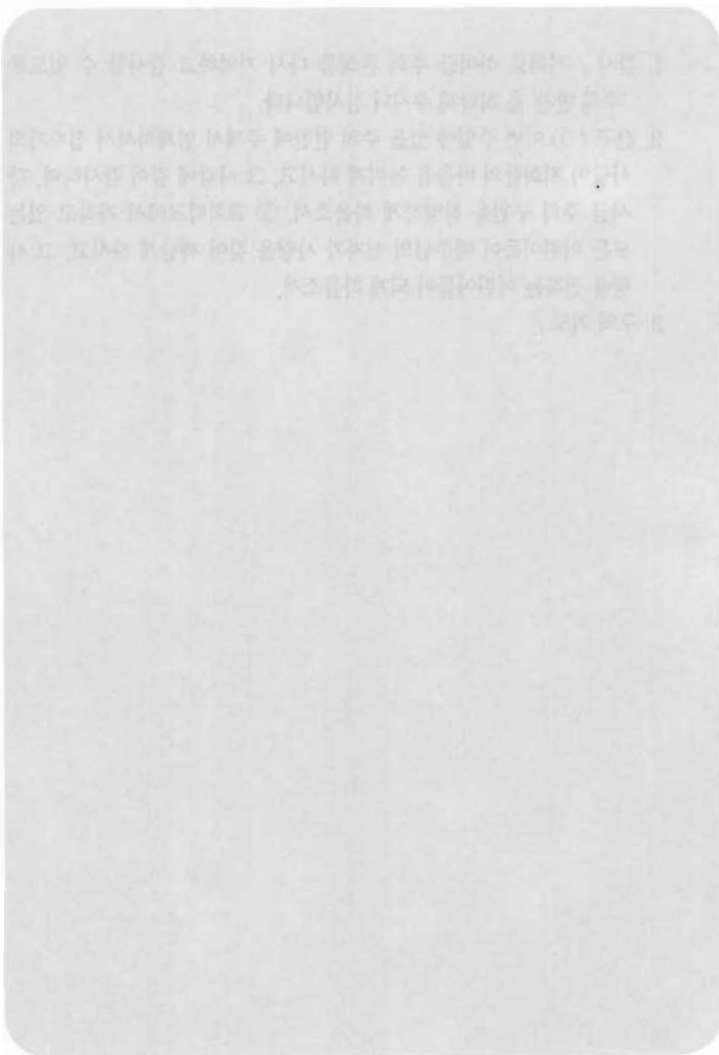
나가면서

충현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서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여러분의 의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선함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상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상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만찬에 담겨있는 역사적, 신학적, 종말론적 의미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아오십시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1. 감사 /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만찬' 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① 이번 주일에 있을 주의 만찬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다시금 주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만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삿 5:23).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말씀에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메로스 사람들을 저주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립’이란 적국과도 잘 지내고 우방과도 잘 지내는 상태입니다. 오늘날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혐오하십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부러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로스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메로스 사람들에 관한 이 짧은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위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와 목전에서 또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고, 이스라엘은 이 십 년 동안 잔인한 학대 속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

는 이름의 군대장관이 있었고, 당시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 구백 승도 있었습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도, 야빈 왕과도 우호관계에 있었습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강하며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의 지휘 아래 일만밖에 되지 않는 적은 군대로, 그것도 드보라가 없으면 이스라엘을 지휘하지도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바락'이라는 남자를 앞세우고, 야빈 왕을 공격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알았을 때, 메로스 사람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야빈 왕의 세속적인 권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최첨단 무기와 많은 군대와 잘 훈련된 전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야빈 왕이 훨씬 더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야빈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래서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결정

한 쪽에는 거대한 세상의 권세가 있었고, 다른 한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 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에서 내려가니”(삿 4:13-14).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삿 5:4-5). 드보라와 바락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선포된 저주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 경제적인 세력, 군사적인 세력을 보면서 그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십니까? 예

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겹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마 10:34,36). 예수님의 입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타 종교인들과 연합시키려는 속셈으로 평등, 자유, 그리고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교도들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지도자들이 크게 환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4).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마 25:31-32). 왜 모든 민족을 분별합니까? 중립적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설교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사람들만이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마 25:35,36 참고). 이 참고 구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여섯 가지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한 일들입니다.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자기에게 이롭지 않다 싶으면 메로스 사람들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따지지 않고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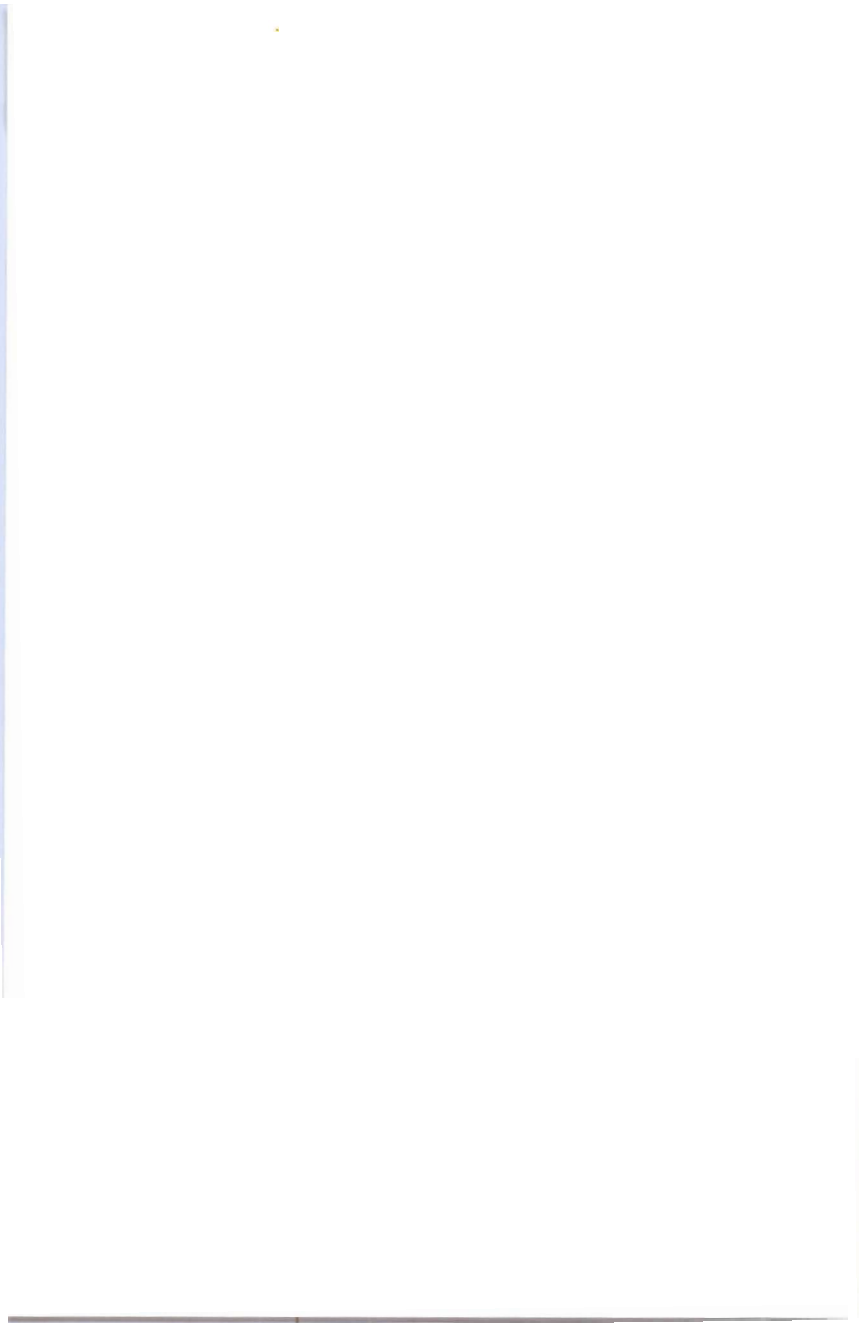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원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자기는 그 일에 죄가 없다며 손을 씻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

수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공모를 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한 반역을 통해서 마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충현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돈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메로스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교회의 단기선교와 행정과 예배에 대해서 불평을 해댁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자기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누구를 배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악한 생각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교활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있으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눅 9:18b)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19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깊은 마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섭니다. 이런 일꾼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일꾼들은 모든 힘을 다해 마귀와 싸웁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확고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결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4년 4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위건량(1-7일), 김익환(8-14일), 임현덕(15-22일),

하종철(23-30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